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오전 9시 / 11시

교회소식

12월의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김은희

다같이

샤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인도자

이 땅을 위한 기도

곧 오소서 임마누엘(찬 104)

임마누엘

그 이름 임마누엘

예수 예수

믿음의 고백

사도행전 23:23-35

주가 나를 사랑하시어

“준비하여라”

그 맑고 환한 밤중에(찬 112)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12월의 공동기도는 “**이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주중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주일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주 토요일(12/11) 새벽기도회는 “**온가족새벽예배**”로 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5. 2022년 **큐티책 연간 정기구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박순정) 1년 : \$70 / 6개월 : \$35
6. 오늘 예배 후 **2022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달력이 두 종류입니다. 각 1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7. 중고등부가 예배 후 친교실에서 **성탄절 찬양을 준비**합니다. 시간은 12시 30분 - 1시 30분 입니다.
8. 삶공부 “**생명의삶**”이 오늘 오후 1시에 지하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9. **현장새벽기도회**가 "목~토"에 있습니다. 영상새벽기도회는 “월-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회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1.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경건함

일반적으로 12월은 일 년 중 가장 바쁜 달이라고 합니다. 12월은 일 년의 마지막 달이면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회계연도를 10월~9월을 사용하고, 미국의 학교는 9월에 새 학년이 시작하기에 미국 사회에서 12월은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바쁜 달은 아니지만, 줄리어스 캘린더를 사용하는 우리들은 12월이 되면 늘 분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12월은 사적으로 가장 많은 모임과 행사가 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가족 행사도 많고 개인적인 휴가를 갖기도 하지만, 직장과 각종 모임에서 조직 개편과 송년회 등으로 분주한 달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12월은 사람들이 가장 경건해지는 달이라고도 합니다. 새롭게 신앙 생활을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게을리하던 신앙 생활에 열심을 내어보려고도 하고, 또한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새해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코비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0년을 빨리 지나가라고 그렇게 보냈듯이, 2021년도 그렇게 빨리 보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는데, 1년을 또 1년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지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글구입니다. 코비드의 시대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비드가 끝나면..., 코비드가 지나가면...” 우리는 코비드가 끝나면 미진했던 만남을 제대로 갖고, 코비드가 지나가면 못했던 일들을 해보리라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 어떤 시간도 그냥 보내어서는 안되며, 또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에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구태여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과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분주한 일상은 의미없는 것이 되며, 오히려 우리의 경건을 깨트리는 부정적 요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의 경건함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